

2009년 8월 10일 새벽 2시 25분

(캠퍼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)

나의 사랑하는 캠퍼스.

너희 내꺼지? 내 것 맞지? 나는 너희가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그 끝을 셀 수 없이 수가 많더라도 너희를 사랑해줄 수 있는데 너희는 그 수가 참 적구나.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만 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을 원한다. 너희를 사랑하듯, 저 흑암으로 사단들에게 속아가는 저들, 자신의 젊음에 빠져 사는 저들도 사랑한다. 저들 데려와오. 데려올 수 있어. 왜냐고? 내가 너희에게 능력 주었으니,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말이야.

캠퍼스야. 황금어장이 되어다오.

왜 황금어장을 뺏기었느냐. 계속 이와 같으면 황금어장이라 불려주고 싶지 않다. 그러나 캠 수련회 잘 해내었다. 수고했다. 한 걸음, 한 걸음 잘해보자. 너희 주관부터 버려. 왜 안 된다고 생각해. 나 최우선 뒤야지. 사랑이 이 어린 자통해 말하니 정녕 나의 말이야.

나는 너희에게 이미 해줄 것 다 해주었어. 선생 통해 말씀주고, 편지주고, 지도자를 보내고, 능력주고……. 아니야? 젊은이들 잡아오라. 섭리의 빛 되어라. 내가 너희를 돌아보게 하여라. 부끄러운 구원에서 끝나지 말아라. 너희를 사랑하니 더 내 사랑과 심정 받으라고 전도하라 하는 것이다. 각 캠퍼스 100명씩 만들라. 너희 학교의 재적인원의 1/10, 십일조는 해야 되지 않겠냐. 내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. 해야지. 1인 3명에 놀래느냐. 캠퍼스 사명의 빛 발하라. 사명은 선교다. 그것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저 흑암으로 가는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. 이 마지막 때에 모두 살자.

잃어버린 양 모두 찾아라. 왜 이리 잃어버린 양들이 많느냐. 관리체계에 잡아야지. 캠퍼스 너희들 불 받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라 믿는다. LTC도 봤어.

그런데 꾸준해야지. 마음만 앞서지 말고 실천해야지.

간사, 교역자 보다 캠퍼스 다니는 진짜 캠퍼스들이 주체 되어야지. 친구들 다 데려와. 너희가 지레 놀라 안 될 거라 하지 말고. 하면 된다. 하는 대로 된다.

행치 않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자다.

내 사랑하는 캠퍼스야. 우리 거듭나 보자. 거듭 나라. 전도하라.

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.

캠퍼스 오랫동안 편 자들아.

수고 많았다. 이제는 때가 때이니만큼 잘 될 것이다. 너희의 주관과 옛 것들을 장사지내듯 모두 버려버리고, 내가 부어주는 나의 영 받았으니 나의 어머니와 하나 되고,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, 선생과 의논하며 행하라. 수고 많았다.

사랑한다.

캠퍼스들아.

기본신앙이 튼튼해야 해. 자기는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전도한다 돌아다니기만 하면 안 돼. 나와 의논하며 먼저 할 것 먼저 하자.

SS에서 캠퍼스 올라온 자들아.

SS때의 순수함 잃지 말고 캠퍼스에서 뛰기만 하면 된다.

내가 애지중지 기른 자들아. 머뭇하지 말아라.

옛것에 익숙해진 지도자들에게 맞추지 말고 너희가 뛰어 나가라.

어린 자들이 뭘 하나고 무시하는 지도자들, 그러하지 말아라.

그들의 열정을 배워라. 그러면서 고쳐줄 것 고쳐주며 협력하라.

그렇다고 캠퍼스는 지도자들 무시해선 안 된다.

이 어린자의 말이라 듣는 자, 그 폐단 청산하고 나의 말인 것 믿어라. 사랑한다. 너희도 나 사랑하는 만큼 전도해 줘. 내가 그 사랑 꼭 받을게.

이성 조심하고, 남자, 여자 하나 되어 일하되, 조심해. 서로 조심해.

나 중심하지 않고 대화하고 눈 맞추는 모든 것 타락이다.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의 뜻을 띄운 배가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. 사랑해.

캠퍼스 중앙지도자들아.

수련회 치른다고 수고 많았다. 지치지 말아라. 큰 것 치러 놓고 지치면 안 된다. 그리고 새로 온 생명들 기껏 모아 놓고 새나가지 않게 그물망 잘 짜주어라.

수고했다. 너희 눈물 보았다.

캠퍼스 모든 자들은 중앙과 하나 되라. 중앙은 나와 하나 된 곳이니 말이다.

사랑한다. 캠퍼스 안녕.

(캠퍼스 말씀 끝나고 다시 제게 말씀해주셨어요.)

수고했다. 선생에게도 보내고 캠퍼스에도 보내고, 간중도 해.

끝까지 겸손하고 사랑해.